

서울市 一部地域住民의 向精神性 醫藥品 服用  
實態에 關한 調査

曹 仁 順·鄭 用 澤·鄭 文 植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A Survey on Pattern of Taking Psychotropic Drugs of the Residents in Seoul**

In Soon Cho, Yong Taik Chung and Moon Shik Zong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s**

This surve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attern of taking psychotropic drugs for 618 cases who visited 48 drugstores located as such four types of areas as business sections, gay quarters, residential sections and quasi-industrial areas from May, 1982 to March, 1983.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ge distribution:

The age group of 20-29 showed the highest distribution covering 35.6% as 220 out of 618 cases. The age groups of thirties and forties covered 23.0% and 19.0% respectively. The sex ratio was estimated as 1:1.86.

2. The occupational distribution:

The unemployees composed the largest portion covering 53.7% as 332 out of 618. Above all the class of the housewives was 32.7%.

3. The marital status:

The degree of distribution was higher on the sides of the group of married people than that of single and its percentage was 30.1.

4. The educational level:

Most of the people who purchased the drugs had no knowledge of the effect of the drugs, and they covered 80.9%.

5. As for the motives, the twenties took psychotropic drugs in order to relief insomnia and that was the biggest major motive at the portion of 59.1%, 130 out of 618.

6. The age group of twenties who took the drugs for about 6 months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52.7%.

7. The highest distribution appeared in the case that takes one or two tablets a day for less than 6 months.

8. The dosage distribution by the number of times taking the drugs; The group of people that took the drugs more than 3 to 4 tablets a day as the number of 1 to 3 times covered 41.7% of 187.

9. The most favorite psychotropic drugs:

Lorazepam was showed to be the most favorite drugs by either male or female covered 50.9%, 54.2% respectively.

10. The motives of selecting drugs:

The optional motives of selecting psychotropic drugs were showed 269 (43.5%) out of 618 cases that chose the drugs for themselves.

## 緒 論

人口의 增加와 産業化로 社會構造가 急變하면서 精神神經障礙(不安, 緊張, 不眠等)와 精神生理學的障礙(腰痛, 偏頭痛, 消化性潰瘍等) 및 精神分裂症患者가 增加하였고 治療目的以外 이들 苦痛과 障礙를 一時的으로 解消하기 위해 向精神性 醫藥品을 服用하는 경우가 增加하고 있다.<sup>1,2,5,11,12)</sup> 向精神性 醫藥品이란 精神機能과 行動 및 經驗에 影響을 미치는 藥物로서 Lysergic Acid(L.S.D), Amphetamines, Barbiturates, Meprobamates, Propoxyphen 등의 幻覺, 習慣性 또는 中毒性이 있는 物質과 誤濫用하면 中樞神經系에 危害를 일으킬 수 있는 物質<sup>6)</sup>을 말한다. 特히 Sternbach(1952)<sup>24)</sup>가 Roche 實驗室에서 最初로 開發한 Benzodiazepine系 醫藥品이 精神神經科 臨床에 廣範圍하게 使用되고 있다. 向精神性 醫藥品을 治療用量 服用했을 때 中樞神經의 視床下部에 選擇的으로 作用하여 不安과 緊張을 解消시키며 過量服用時에는 中樞뿐만 아니라 脊樞神經에도 作用하여 筋弛緩 作用과 알콜의 禁斷症狀의 抑制 및 骨格筋의 痙攣을 抑制시키는 效果가 있다. 그러나 治療容量이라도 長期間 連用했을 때는 不眠症, 振顫, 극심한 不安, 痙攣, 譫妄 및 精神錯亂 등의 禁斷症狀과 藥物耐性, 中毒症狀을 일으킨다.<sup>24)</sup> 따라서 服用者가 增加하므로 濫用될 可能性이 커 法的 許容

量만을 購入, 治療目的으로 使用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用量 超過販賣도 禁止하고 있으나 服用者들은 實際로 한 종류의 藥을 여러 藥局에서 購入하여 過量的 醫藥品을 소유하고 過量 服用하는 現狀이 나타난다. 또한 專門家에게 診斷과 處方 및 相談도 하지 않고 주위 服用者들의 經驗談이나 勸誘, 매스컴, 其他 廣告 등의 媒體를 통해 무분별하게 服用될 可能性이 크다고 본다. 이에, 本 著者는 向精神性 醫藥品 服用實態를 調查하여 봄으로써 효율적인 向精神性 醫藥品管理에 도움이 되고자 그 結果를 報告하는 바이다.

## 調查對象 및 方法

### 1. 調查對象

1982年 5月부터 1983年 3月까지 10個月 동안 서울市內의 住宅地域, 商業地域, 遊興業所地域 및 小規模工業地域에 位置한 48個 藥局을 選定하여 向精神性 醫藥品을 購入하기 위해 이들 藥局을 訪問한 總 864名中 面接에 應한 618名(71.5%)을 對象으로 하였다.

### 2. 調查方法

미리 準備된 設問紙 內容을 48個 藥局의 藥師들에게 周知시켜 配布된 資料에 依해 面接方法으로 調查하였다.

向精神性 醫藥品의 藥理作用에 關한 知識程度를 측정한 內容은 다음의 네가지 項目으로

調査하였다.

- 1) 治療用量을 服用하면 不安, 緊張, 不眠等을 解消시킨다.
- 2) 過量을 服用하면 呼吸麻痺, 昏睡, 惡心, 嘔吐 및 血壓降下의 現狀을 일으킨다.
- 3) 長期間 連用하면 習慣性, 中毒性 및 藥物耐性이 생긴다.
- 4) 筋痙攣, 不安感, 筋無力感, 惡心, 嘔吐等의 禁斷症狀과 全身 痙攣도 생긴다.

### 成績 및 考察

#### 1. 社會文化的 背景

##### 1) 年齡別 分布

總 618 名中 男子는 216 名으로 35.0%, 女子는 402 名으로 65.0%를 차지하였으며 服用者의 男女性比는 1:1.86으로 調査되었다. 年齡別로 보면 20代가 35.6%로 가장 높았으며 30代와 40代 年齡群에서 各各 23.0%, 19.0% 順으로 調査되었다(表 1 參照).

특히 女性 服用者는 20代에서 30.8%로 가장 높았으며 30代와 40代에서 各各 22.4%, 20.9%로 調査되었다. 男子의 경우도 20代에서 44.4%로 가장 높았고 30代와 40代에서 各各 24.1%, 15.3% 順으로 調査되었다. 이는 서울市 人口中 20代에서 40代의 人口가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徐<sup>7)</sup>의 調査에

서는 40代 年齡群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30代와 20代 年齡群에서 各各 30.0%와 26.3%를 차지하였다. 20代 年齡群에서 本 調査와 差異를 보인것은 心理的으로 不安하며 行動은 과격하고 極斷에 이르기 쉬운 1970年代 以後 人口의 都市集中, 高度의 産業化等으로 이들에게 傳統的 價直觀이 붕괴되면서 向精神性 醫藥品의 服用이 增加한 것으로 생각된다. Lawrence, C. K.<sup>21)</sup>와 Carl, D. C.<sup>20)</sup> 등의 調査에서도 世界的으로 靑少年과 젊은 年齡層인 18才에서 35才의 年齡群에서 向精神性 醫藥品 服用이 增加하고 있고 Kovar, K. A.<sup>26)</sup>와 Krug, S. E.<sup>27)</sup> 등도 男子보다 女子에서 많이 服用하고 있어 本 調査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20代 年齡群에서 向精神性 醫藥品 服用의 增加는 不健全한 人格의 造成과 더불어 精神, 身體的인 副作用과 毒性, 바이러스성肝炎(Hepatitis Virus)<sup>32,34)</sup>과 絶對盲(Nerve Atrophy)<sup>37)</sup>의 증상까지 야기될 수 있어 健全한 成人이 형성되는데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 2) 職業別 分布

標準職業別 分類에 依해 分類한 總 618名中 無職 332名(53.7%)과 職業이 있는 경우가 46.3%로 調査되었다(表 2 參照).

男子의 경우 84.3%가 職業이 있었고 이들

表 1. 向精神性 醫藥品 服用者의 年齡別 分布

( ) : %

年 齡	性		總 計
	男 子	女 子	
20 이하	11( 5.1)	29( 7.2)	40( 6.5)
20~29	96( 44.4)	124( 30.8)	220( 35.6)
30~39	52( 24.1)	90( 22.4)	142( 23.0)
40~49	33( 15.3)	84( 20.9)	117( 19.0)
50~59	14( 6.5)	43( 10.7)	57( 9.2)
60 이상	10( 4.6)	32( 8.0)	42( 6.8)
總 計	216(100.0)	402(100.0)	618(100.0)

은 販賣職, 事務職, 生産職 等の 順으로 各各 30.1%, 23.6%, 13.9%였으며 女子는 서비스職이 12.9%로 가장 높고 事務職, 販賣職, 生産職 等は 5.0%, 4.0%, 3.5%로 비슷하게 調査되었다. 無職에서는 家庭主婦가 402名中 202名(50.2%)로 가장 높게 調査되어 이들이 家庭教育과 안정된 家庭生活에 커다란 影響을 준다는 點에서 더욱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子女의 藥物依存을 隱然中에 誘發시킬 可能性이 크다고 할 수 있다.

3) 結婚狀態別 分布

總 618名中 57.8%인 357名이 結婚生活을

하며 未婚과 獨身이 各各 30.1%, 9.2%로 調査되었다(表 3 參照). 또한 結婚한 사람중에서 男子는 59.3%, 女子 57.0%이었으며 未婚의 경우도 男子와 女子가 各各 35.2%, 27.4%로 調査되었다. 離婚, 別居 및 獨身에서 比較的 長期 服用者가 많아 日常生活에서 發生되는 不滿足, 緊張, 싸움 등과 不安靜한 結婚生活者가 服用率이 높다는 Morris, S.C.<sup>25)</sup>의 調査와 關聯이 있다고 생각한다.

4) 藥理作用에 對한 認知度

調査方法에서 제시한 內容中 向精神性 醫藥品에 對한 藥理作用을 評價하기 위해 네가지로

表 2. 向精神性 醫藥品 服用者의 職業別 分布

( ) : %

職 業		性		總 計
		男 子	女 子	
職 業	技 術 職	15( 7.0)	2( 0.5)	17( 2.8)
	事 務 職	51( 23.6)	20( 5.0)	71( 11.5)
	販 賣 職	65( 30.1)	16( 4.0)	81( 13.1)
	生 産 職	30( 13.9)	14( 3.5)	44( 7.1)
	서 비 스 職	21( 9.7)	52( 12.9)	73( 11.8)
小 計		182( 84.3)	104( 25.9)	286( 46.3)
無 職	家 庭 主 婦	-	202( 50.2)	202( 32.7)
	學 生	13( 6.0)	4( 1.0)	17( 2.8)
	其 他	21( 9.7)	92( 22.9)	113( 18.2)
小 計		34( 15.7)	298( 74.1)	332( 3.7)
總 計		216(100.0)	402(100.0)	618(100.0)

表 3. 向精神性 醫藥品 服用者의 結婚狀態別 分布

( ) : %

結婚狀態		性		總 計
		男 子	女 子	
結 婚		128( 59.3)	229( 57.0)	357( 57.8)
未 婚		76( 35.2)	110( 27.4)	186( 30.1)
離 婚		4( 1.8)	4( 1.0)	8( 1.3)
別 居		1( 0.5)	9( 2.2)	10( 1.6)
獨 身		7( 3.2)	50( 12.4)	57( 9.2)
總 計		216(100.0)	402( 100.0)	618( 100.0)

表 4. 教育水準別 藥理作用에 對한 知識程度

( ) : %

教育水準	區 分	안 다	약간안다	모 른 다	總 計
無 學		-	2( 3.9)	49(96.1)	51(100.0)
國 卒		-	6( 6.7)	83(93.3)	89(100.0)
中 卒		3(2.0)	18(12.2)	127(85.8)	148(100.0)
高 卒		6(2.4)	52(21.1)	189(76.5)	247(100.0)
大 卒		8(9.6)	23(27.7)	52(62.7)	83(100.0)
總 計		17 (2.8)	161(16.3)	500(80.9)	618(100.0)

項目을 區分하였다. 이 중 세가지 項目以上을 알고 있을 때를 “안다”, 1)의 項目만을 알고 있을 때를 “모른다”로, 1)의 項目 以外 한 가지 項目을 알고 있을 때를 “약간안다”로 區分하여 調査하였다(表 4 參照). 總 618名中 500名이 藥理學的 所見을 「모른다」고 하여 80.9%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알고 있다」 16.3%, 「안다」 2.8%順이었다. 無學과 國卒의 경우는 96.1%, 93.3%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모르는 狀態에서 服用하였으며 中卒, 高卒, 大卒은 85.8%, 76.5%, 62.7% 順으로 조사되었다. 「약간 안다」의 경우는 大卒이 27.7%로 가장 높고 高卒과 中卒이 各各 21.1%, 12.2% 順이었다. 盧<sup>10)</sup>와 徐<sup>7)</sup>의 調査에서도 高卒水準에서 各各 25.0%와 37.5%로 調査되어 서울시 平均 教育水準에서 高卒이 33.1%로 많은 것을 감안 한다면 本 調査의 教育水準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주며 向精

神性 醫藥品을 服用하고 있는 精神·神經症患者의 教育水準이 大卒이 가장 많고 그 中에서도 女子가 많다는 Donna, C. A.<sup>39)</sup> 등의 調査와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 服用實態 調査

1) 向精神性 醫藥品의 服用動機

總 服用者 618名中 306名이 不眠症을 解消할 目的으로 服用하여 49.5%로 가장 높았으며 不安, 緊張, 憂鬱 등의 精神的 障礙가 21.2%, 頭痛 16.3%, 好嗜心 8.3% 등의 順으로 調査되었다(表 5 參照). 年齡別로 服用動機 區分해 보면 20代에서는 不眠症으로 服用하는 경우가 59.1%로 가장 높았으며 頭痛과 好嗜心이 各各 15.9%, 12.3% 였다.

30代에서도 不眠症이 52.1%로 가장 높고 頭痛과 不安이 各各 26.6%, 17.6% 였으며 40代에서는 不眠症 46.2% 不安 33.3% 頭

表 5. 向精神性 醫藥品의 服用動機

( ) : %

年齡	動機	好嗜心	不安, 憂鬱	不眠症	頭 痛	慢性病治療劑의 補助目的	手術後痛症 緩和	宿醉除去	總 計
20 미만		15(37.5)	13(32.5)	16(25.0)	2( 5.0)	-	-	-	40(100.0)
20~29		27(12.3)	21( 9.5)	130(59.1)	35(15.9)	2( 0.9)	4(1.8)	1(0.5)	220(100.0)
30~39		6( 4.2)	25(17.6)	74(52.1)	32(22.6)	3( 2.1)	2(1.4)	-	142(100.0)
40~49		3( 2.6)	39(33.3)	54(46.2)	15(12.8)	2( 1.7)	3(2.6)	1(0.8)	117(100.0)
50~59		-	15(26.3)	24(42.1)	13(22.8)	3( 5.3)	-	2(3.5)	57(100.0)
60 이상		-	18(42.9)	14(33.3)	4( 9.5)	5(11.9)	1(2.4)	-	42(100.0)
總 計		51( 8.3)	131(21.2)	306(49.5)	101(16.3)	15( 2.4)	10(1.6)	40(0.8)	618(100.0)

痛 12.8% 等の 順으로 調査되었다.

이와같이 不眠症과 不安, 頭痛 등으로 服用하는 경우가 높은 것은 徐<sup>7)</sup> 金<sup>4)</sup> 과 Lawrence, C.K.<sup>21)</sup> 等の 調査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2) 年齡別 服用期間의 變化

總 618名 中 43.2%인 267名이 6個月未滿을 服用하여 가장 높았으며 6個月에서 1年未滿 服用者 18.9%, 1年에서 3年未滿은 18.6%로 調査되어 3年未滿의 服用者가 全體의 80.7%를 차지하였다 (表 6 參照). 年齡別로 服用期間을 보면 10代에서는 6個月未滿의 服用者가 60.0%로 가장 높았고 20代에서 50代까지도 6個月未滿의 服用者가 높

게 調査되었으며 3年未滿에서는 各 年齡群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또한 60代 以上에서는 1~3年 服用者가 26.2%로 가장 높고 3~5年 19.0%, 9年以上 16.7% 順이었다.

陳<sup>1)</sup>과 金<sup>5)</sup> 等の 調査에서 20代와 30代 年齡群이 習慣性, 中毒性 患者가 1960年代보다 增加하였으며 徐<sup>7)</sup>의 調査에서도 30代와 40代의 女性服用者가 높게 나타나 本 調査와 一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Sophie, P<sup>19)</sup>는 向精神性 醫藥品을 微量服用해도 胎兒에게 呼吸麻痺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며 Stephen, R. K.<sup>4)</sup>은 妊娠中에 長期間 服用할 경우 新生兒에서 갑작스런 근경축을 觀察하였다고 報告한 바 있다.

表 6. 年齡別 服用期間의 變化

( ): %

年齡 期間(年)	20 미만	20~29	30~39	40~49	50~59	60 이상	總 計
1/2 미만	24(60.0)	116( 52.7)	63( 44.4)	42( 35.9)	22( 38.6)	-	267( 43.2)
~ 1	6(15.0)	38( 17.3)	22( 15.5)	32( 27.4)	12( 21.1)	7( 16.7)	117( 18.9)
1~3	8(20.0)	34( 15.5)	29( 50.4)	25( 21.4)	8( 14.0)	11( 26.2)	115( 18.6)
3~5	2( 5.0)	25( 11.4)	13( 9.2)	9( 11.7)	5( 8.8)	8( 19.0)	62( 10.0)
5~7	-	4( 1.8)	7( 4.9)	2( 1.7)	2( 3.5)	6( 14.3)	21( 3.4)
7~9	-	3( 1.3)	3( 2.1)	1( 0.8)	-	3( 7.1)	10( 1.6)
9 이상	-	-	5( 3.5)	6( 5.1)	8( 14.0)	7( 16.7)	26( 4.2)
總 計	40(100.0)	220(100.0)	142(100.0)	117(100.0)	57(100.0)	42(100.0)	618(100.0)

表 7. 服用期間別 1日 服用量의 變化

( ): %

錠 年	1~2	3~4	5~6	7~8	9~10	10 이상	總 計
1/2 미만	142( 61.2)	123( 39.7)	2( 9.1)	-	-	-	267( 43.2)
~ 1	39( 16.8)	74( 23.9)	3( 13.6)	-	-	1( 4.3)	117( 18.9)
1~3	33( 14.2)	77( 24.8)	2( 9.1)	1( 8.3)	-	2( 8.7)	115( 18.6)
3~5	12( 5.2)	32( 10.3)	6( 27.3)	3( 25.0)	7( 36.9)	2( 8.7)	62( 10.0)
5~7	3( 1.3)	3( 1.0)	6( 27.3)	4( 33.3)	2( 10.5)	3( 13.0)	21( 3.5)
7~9	3( 1.3)	-	-	2( 16.7)	2( 10.5)	3( 13.0)	10( 1.6)
9 이상	-	1( 0.3)	3( 13.6)	2( 16.7)	8( 42.1)	12( 52.1)	26( 4.2)
總 計	232(100.0)	310(100.0)	22(100.0)	12(100.0)	19(100.0)	23(100.0)	618(100.0)

### 3) 服用期間別 1日 服用量の 變化

1日 1~2錠 服用者 232名中 6個月未滿인 경우는 142(61.2%)名으로 가장 높고 6個月에서 1年未滿에는 16.8%, 1年에서 3年未滿 14.2% 등의 順으로 調査되었다(表7 參照). 3~4錠의 경우 總 310名中 123(39.7%)名이 6個月未滿을 服用하여 가장 높았으며 5~6錠은 3年에서 7年 服用이 54.6%로 가장 높았다. 또한 10錠 以上 服用은 23名中 12名이 9年 以上 服用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gashira, E.<sup>14)</sup> 등은 Barbiturates系 向精神性 醫藥品에 關한 實驗研究에서 長期間 服用한수록 1日 服用量이 增加함을 證明하였고 Alfred, M. F.<sup>40)</sup> 등도 Benzodiazepines系에서 비슷한 結果를 報告하였으며 Fuente, J. R.<sup>31)</sup> 등이 Lorazepam에 關한 研究에서 不安과 緊張解消의 效果는 크지만 向精神性 醫藥品 依存性이 생긴다고 하여 服用期間에 따라 服用量이 變하는 點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4) 服用回數와 1日 服用量の 變化

比較的 藥物依存度가 높다고 할 수 있는 1日 1~3回 服用者 187名中 3~4錠을 服用하는 경우가 41.7%로 가장 높았으며 1~2錠 32.6%, 10錠 以上 10.2% 등의 順이었다(表8 參照).

1週日에 1~2回 服用하는 경우에서도 3~4錠 58.3%, 1~2錠 33.9% 順이었으며 6個月에 1~2回 服用에서도 비슷하게 調査되었다. 특히 처음 服用하는 경우에 3~4錠을 57.0%, 1~2錠을 43.0%가 服用하였으며 每日 5錠 以上 服用하는 경우가 25.7%로 調査되었다. 이는 Phillip, H. B.<sup>24)</sup> 등이 個人에 따라 藥物에 對한 要求度가 다르며 同一用量에서도 血장농도가 多樣하고 初期 服用量이 耐性形成에 關聯이 깊다고 報告한바 있어 治療的 用途에서도 注意가 必要한 것으로 본다.

### 3. 向精神性 醫藥品의 種類와 選擇動機

1) 愛用하고 있는 向精神性 醫藥品의 種類 總 618名中 32名이 Benzodiazepines系의 Lorazepam을 服用하여 53.0%로 가장 높았고, Diazepam 21.7%, Nitrazepam 7.9% 順으로 調査되었다(表9 參照). 특히 Benzodiazepines系 向精神性 醫藥品 服用者가 總 調査對象者 618名中 595名으로 96.3%를 차지했으며 Barbiturates系와 其他의 Pyriithidion은 各各 1.9%, 1.8%로 調査되었다.

한편 愛用된 醫藥品을 性別로 보면 男子에서 Lorazepam은 50.9%, Diazepam 33.3

表8. 服用回數와 1日 服用量の 變化

( ) : %

錠	回數	月 1~2	週 1~2	日 1~3	* 日 1~2	總 計
1~2		52(44.8)	61(33.9)	61(32.6)	58(43.0)	232(37.5)
3~4		50(43.2)	105(58.3)	78(41.7)	77(57.0)	310(50.2)
5~6		2(1.7)	8(4.4)	12(6.4)	-	22(3.6)
7~8		1(0.9)	3(1.7)	8(4.3)	-	12(1.9)
9~10		7(6.0)	3(1.7)	9(4.8)	-	19(3.1)
10 이상		4(3.4)	-	19(10.2)	-	23(3.7)
總 計		116(100.2)	180(100.0)	187(100.0)	135(100.0)	618(100.0)

\* 처음 服用한 경우

表 9. 愛用하고 있는 向精神性 醫藥品の 種類

( ) : %

醫藥品名	性		總 計
	男	女	
<b>Benzodiazepines :</b>			
Lorazepam	110( 50.9)	218(54.2)	328( 53.0)
Diazepam	72( 33.3)	62(15.4)	134( 21.7)
Nitrazepam	12( 5.6)	37( 9.2)	49( 7.9)
Flurazepam	2( 0.9)	8( 2.0)	10( 1.6)
Oxazepam	3( 1.4)	10( 2.5)	13( 2.1)
Medazepam	4( 1.9)	18( 4.5)	22( 3.6)
Temazepam	3( 1.4)	6( 1.5)	9( 1.5)
Clobazam	6( 2.8)	24( 6.0)	30( 4.9)
<b>Barbiturates :</b>			
Phenobarbital	2( 0.9)	10( 2.5)	12( 1.9)
<b>Others :</b>			
Pyrrithildion	2( 0.9)	9( 2.2)	11( 1.8)
總 計	216(100.0)	402(100.0)	618(100.0)

表 10. 現在 服用하고 있는 醫藥品の 選擇動機

( ) : %

選擇動機	性		總 計
	男	女	
自身の 決定	102( 47.2)	167( 41.5)	269( 43.5)
親舊와 家族의 勸誘	38( 17.6)	89( 22.1)	127( 20.6)
藥師의 勸誘	31( 14.4)	69( 17.2)	100( 16.2)
醫師의 處方	26( 12.0)	42( 10.5)	68( 11.0)
TV 및 廣告	19( 8.8)	35( 8.7)	54( 8.7)
總 計	216(100.0)	402(100.0)	618(100.0)

%, Nitrazepam 5.6% 順이었으며 女子에서도 Lorazepam 54.2%, Diazepam 15.4%, Nitrazepam 9.2% 順으로 나타나 愛用한 醫藥品에서 男女間에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Khan, A. H.<sup>12)</sup> 等の 調査에서는 歐美에서 Benzodiazepines系 醫藥品의 需要가 增加하고 있으며 특히 初期服用者들의 利用率이 높다고 하였고 Fuente, J. R.<sup>31)</sup> 等は Lorazepam 이 臨床에 廣範圍하게 使用되어 藥物依存性과

禁斷症狀이 深刻함을 強調하였다.

2) 現在 服用하고 있는 醫藥品의 選擇動機 總 618名 中 自身の 決定에 依해 服用하는 경우가 269名(43.5%)으로 가장 높게 調査되었으며 新舊와 家族의 勸誘 20.6%, 藥師의 勸誘 16.2%, 醫師의 處方 11.0% 等の 順으로 調査되었다(表 10 參照). 또한 男子의 경우 自身の 決定이 47.2%로 가장 높았고 新舊와 家族의 勸誘 17.6%, 藥師의 勸誘 14.4% 等이었으며 女子에서도 選擇動機가 비슷한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李<sup>8)</sup>의 調査에서도 自身の 決定과 新舊 및 家族의 勸誘가 各各 42.9%, 24.9%로 本 調査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醫藥分業이 體系化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周圍로부터의 勸誘나 自己自身이 單純하게 任意로 決定하는 比率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專門家の 診斷과 處方 및 相談으로 向精神性 醫藥品の 誤濫用을 막아야 하며 保健行政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結 論

1982年 5月부터 1983年 3월까지 10個月 동안 서울市內 48個 藥局 中 向精神性 醫藥品을 購入하기 위해 訪問한 864名 中 面接에 應한 618名을 對象으로 服用實態를 調査하여 얻은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年齡別 分布는 20代가 35.6%로 가장 많았으며 30代와 40代는 各各 23.0%, 19.0%로 調査되었고 男女 性比는 1:1.86이었다.

2. 職業을 分類해 보면 家庭主婦가 32.7%로 가장 많았고 販賣職, 서비스職, 事務職 順이었다.

3. 結婚狀態別로 보면 結婚이 57.8%로 가장 많았으며 未婚이 30.1%로 調査되었다.

4. 向精神性 醫藥品の 藥理作用에 對한 認知度를 教育水準別로 보면 80.9%가 「모른다」로 調査되었으며 「안다」의 경우는 2.8%程度였다. 特히 無學의 경우는 96.1%가 藥理作用을 잘 모르면서 服用하였다.

5. 服用動機는 不眠症 49.5%, 不安과 憂鬱이 21.2%, 頭痛 16.3%, 好嗜心 8.3% 등의 順으로 調査되었다. 特히 20代와 30代 年齡群에서 不眠症으로 各各 59.1%, 52.1%가 服用하여 比較的 높게 調査되었다.

6. 服用期間을 보면 6個月 未滿이 43.2%

로 가장 많았고 3年以下의 服用者가 全體의 80.7%를 차지하였다. 特히 20代 以下에서 6個月 未滿의 服用者가 60.0%로 가장 많았으며 20代와 30代 年齡群이 6個月 未滿의 경우 各各 52.7%, 44.4%였다.

7. 服用期間에 따른 1日 服用量의 變化를 보면 6個月 未滿의 服用者中 1~2錠이 61.2%로 가장 많았으며 3~4錠이 39.7%였다.

8. 服用回數와 1日 服用量의 變化에서는 比較的 藥物依存度가 높다고 할 수 있는 1日 1~3回 服用者 187名中 3~4錠을 服用하는 경우가 41.7%로 가장 높았으며 1~2錠 32.6%, 10錠以上 10.2% 등의 順으로 調査되었다.

9. 가장 愛用하고 있는 向精神性 醫藥品을 보면 Benzodiazepines 系의 Lorazepam이 53.0%로 가장 높았고 Diazepam 21.7%, Nitrazepam 7.9% 등의 順으로 調査되었다.

10. 現在 服用中인 醫藥品の 選擇動機는 自己 自身の 決定이 43.5%로 가장 많았고 親舊와 家族의 勸誘가 20.6%, 藥師의 勸誘 16.2% 順으로 調査되었다.

## 参 考 文 献

1. 陳星基: 世界藥物 習慣性 中毒의 現況, 綜合醫學, Vol. 14, No. 4, pp. 15~16, 1969.
2. 李星浩: 非痲藥性 習慣性 藥物, 綜合醫學, Vol. 14, No. 4, pp. 17~18, 1969.
3. 李東植: 藥物 習慣性 中毒의 心理, 綜合醫學, Vol. 14, No. 4, pp. 19~20, 1969.
4. 金正言: 精神科 外來患者 不眠症 양상에 對한 考察, 神經精神醫學, Vol. 16, No. 3 pp. 288~299, 1977.
5. 金光日: 韓國藥物 習慣性 中毒의 現況, 綜合醫藥, Vol. 14, No. 4, pp. 16~17, 1969.
6. 保社部: 向精神性 醫藥品 管理法, 藥事法 領集, pp. 157~191, 1982.

7. 徐元璧：藥物濫用的臨床的考察，神經精神醫學，Vol. 16 No. 2, pp. 197 ~ 203, 1977.
8. 李定均：習慣性藥物中毒에 관한 研究，神經精神醫學，Vol. 9, No. 2, pp. 105 ~ 108, 1970.
9. 李文子：서울市内 一部 男女 中高等學校 學生들의 習慣性 藥物 使用實態 調查，保健獎學會，Vol. 8, pp. 241 ~ 251, 1982.
10. 盧永根：서울市内 一部 藥局의 醫藥品 利用實態에 關한 研究，公衆保健學雜誌，Vol. 11, No. 1, pp. 1 ~ 8, 1974.
11. Ruth, Cooperstock: Psychotropics as a world problem, Drug dependence, Vol. 10, No. 9, pp. 176 - 179, 1982.
12. Khan, A. Hornblow. Walshe, J. W.: Nonbarbiturate sedative and hypnotics, Drug dependence, Vol. 10, No. 9, pp. 349 ~ 350, 1982.
13. Enrique, M. Ostres. Emilia, C. Ting. Sandford, N. Cohen: Neonatal withdrawal from non-narcotic drugs, drug use pattern in pregnant women, pp. 170 - 171, 1976.
14. Tagashira, E. Urano, T. Yasukouchi, I.: Tolerance and dependence on barbiturates in mice with reference to date in rate, Drug dependence, Vol. 10, No. 4, pp. 136, 1982.
15. Tyrer, P. J.: Dependence on benzodiazepines, Drug dependence, Vol. 10, No. 4, p. 136, 1982.
16. Schopf, J.: Unusual withdrawal symptoms after long-term administration of benzodiazepines, Drug dependence, Vol. 10, No. 6, pp. 222 - 223, 1982.
17. Yanagita, T. Wakasa, Y: Dependence potential of Clobazam tested in Rhesus monkeys, Drug dependence, Vol. 10, No. 5, pp. 177 ~ 178, 1982.
18. Einstein, R. Hughes. L.E. Hindmarch, I.: Drug intelligence of clinice, Drug dependence, Vol. 4, p. 120, 1976.
19. Sophie, Pierog: The infant in narcotic withdrawal, drug abuse in pregnancy and neonatal effects, pp. 105 - 106, 1977.
20. Carl, D. Chambers. Leon, G. Hunt: Drug use patterns in pregnant women drug abuse in pregnancy and neonatal effects, pp. 73 - 91, 1977.
21. Lawrence, C. Kolb: Drug dependence in modern clinical Psychiatry, pp. 590 - 529, 1973.
22. Poikolainen, K.: Mortality related to psychotropic substance, pharmacology and toxicology, Vol. 39, No. 5, pp. 294 - 295, 1982.
23. Horrobin, D. F. Trosko, J. E.: The possible effects of diazepam on cancer: Developmental and growth, pharmacology and toxicology, Vol. 54, No. 4, pp. 251 - 252, 1982.
24. Phillip, H. Bookmann. Lowell, O. Randall: Therapeutic uses of benzodiazepines, drug treatment of mental disorder, pp. 73 - 90, 1976.
25. Morris, S. Carter: Drug and Society, The human dilemma, Drug dependence, pp. 13 - 14, 1974.
26. Kovar, K. A.: Medicine use, abuse and dependence, Drug dependence, Vol. 4, pp. 3 - 6, 1976.
27. Krug, S. E. Henry, T. J.: Personality, motivation and adolescent drug use

- patterns .
28. Mckee, M. R. : Drug abuse knowledge and attitudes in middle America, Drug dependence, Vol. 4, pp. 38-39, 1976.
  29. Bohme, K. : Intoxicant drugs from a psychiatric point of view, Drug dependence, Vol. 4, pp. 121-122, 1976.
  30. Fernandez, F. A. : Psychosocial contamination, dependencies, violence, sexual phobias, Drug dependence, Vol. 4, pp. 121, 1976.
  31. Fuents, J. R. Rosenbaum, A. M. Niven, R. G. : Lorazepam related withdrawal seizures, Drug dependence, Vol. 9, No. 1, p. 7, 1981.
  32. Saintomer, F. B. Montalto. B. Chibbaro. G. Manfredini. F. : Liver histology and humoral factor in drug addition, Drug dependence, Vol. 9, No. 1, p. 240, 1981.
  33. Kurihara, H. Mera, H. Obara, Y. : A case of optic nerve atrophy due to thinner poisoning, Drug dependence, Vol. 9, No. 1, p. 240, 1981.
  34. Seeff, L. B. : Hepatitis in the drug abuser, Drug dependence, Vol. 4, No. 1, p. 203, 1980.
  35. Delachaux, A. Brooke, E. M. Haller. E. : Drug addition in the Canton of Vaud, Drug dependence, Vol. 9, No. 1, p. 156, 1981.
  36. Japsen, P. W. Haastrup, S. Montebello : Withdrawal reactions following benzodiazepine treatment, Drug dependence, Vol. 8, No. 1, p. 25, 1980.
  37. Krupinski, J. Stoller, A. Graves, G. D. : Drug use among the young population of the State of Victoris, Drug dependence, Vol. 8, No. 1, p. 136, 1980.
  38. Grinker. R. et al. : The phenomenona of depressions, New York, Paul, B. Hoeber, Inc. Lewis, A. J. : Melancholia, a clinical survey of depressive state, pp. 132-133, 1934.
  39. Janice, M. Messick. Donna, C. Aguilera : Differentiation between psychotherapeutic technique, Crisis intervention, No. 3, p. 22, 1978.
  40. Alfred, M. Freedmann. Harold, L. Kaplan. Benjamin, T. Sadock : Psychiatry II, Drug dependence, Vol. 1, No. 2, p. 113, 1975.
  41. Stephen, R. K. : Late complications in pregnancy and neonatal effects, p. 117, 1977.